

【특집: 기획서문】

‘방법론적 지역주의’와 만주연구의 과제

—‘만주국’ 이민 연구의 동향을 중심으로—*

이 동 진**

┃ 차 례 ┃

- I. 연구 배경
- II. 연구 주제와 범위
- III. 연구 자료와 방법
- IV. 연구 시각
- V. 향후의 과제

국문초록

한국에서 ‘만주국’ 이민 연구는 가히 봄을 이루고 있다. 이 글은 만주국 이민 연구가 봄을 이루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만주국 연구 봄의 현황과 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만주국 연구가 봄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배경에는 정부의 연구 지원 체제가 있다. 또 하나의 배경에는 한국 문학에서 만주 이민 문학의 발견이 있다. 현재 한국의 만주국 이민 연구를 주도하는 것은 한국 문학 전공자들이다. 이것은 한국 문학에서 만주국 이민 문학을 발견함으로써 식민지 시기 ‘최후기’ 문학 연구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학 연구라는 ‘표상’의 연구와 역사 연구라는 ‘실재’의 연구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상과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만주 이민 연구에 대한 지원 체제가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입장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과 그것에 대해서 ‘만주학회’에 의해서 탐구되어 온 ‘방법론적 지역주의’의 의의에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경북대학교 연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대해서 연구사 정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주제어: 만주국, 만주국 조선인 이민, 만주 조선인 문학, 표상과 실제의 불균형, 방법론적 지역주의

I. 연구 배경

한국에서의 ‘만주국 시기 이민사’ 또는 ‘만주국 시기 재만 조선인’에 관한 연구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주학회’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¹⁾ 만주국 시기의 재만 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만주국 시기에 관한 연구와 재만 조선인에 관한 연구가 교차하는 영역인데, 만주학회가 한국에서의 만주국 시기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재만 조선인에 관한 연구도 주도해 왔다.²⁾ 재만 조선인 이민사에 관한 연구는 이훈구(1932)가 선구적인 연구였으며, 현규환(1967)이 그 뒤를 이었다. 이훈구와 현규환은 모두 경제학자였다. 만주국 시기 재만 조선인 연구는 ‘백산학회’(1966년에 창립)의 학회지인 『백산학보』에 수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오세창, 1979; 홍종필, 1993), 1990년대에 한국사 전공자들에 의해서 독립운동사가 활발하게 연구되었다(황민호, 1998; 신주백, 1999; 장세윤, 2005). 독립운동을 넘

1) 이 글은 2018년 8월 6일에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대학원국제문화연구과와 일본과학연구비 보조금기반연구(B) 「일본/조선/중국동북에서 본 '만주'의 기억과 흔적: 핍주하는 민족계급젠더」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공개 워크숍 〈한중일 '만주' 이민 연구의 동향과 과제〉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2) 한국에서의 연구사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의 연구로 제한한다. 중국인과 일본인 중에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한국인 중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연구자로서 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이들이 각각 중국과 일본에서의 연구사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일본인으로서 다나카 류이치(田中隆一), 중국인(조선족)으로서 손춘일(孫春日), 최봉룡, 일본에서 학위를 받은 한국인으로서 신규섭(申奎燮) 등이 있다. 최근에는 특히 문학 분야에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중국 연구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로서는 천춘화, 이복실 등이 있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로서는 전월매 등이 있다.

어서는 연구로서는 만주국 국가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와 재만 조선인의 이민사에 관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는데, 만주학회 회원들이 만주국 국가 기구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재만 조선인 이민사에 관한 연구까지 확장해 갔다.

만주학회의 전신은 1998년에 만주연구회(회장 김기훈)라는 연구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창립 회원들은 한국사 전공자들이 아니라 중국사, 일본사, 사회학 전공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이 처음 한 활동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에서의 만주국 연구 동향을 정리하는 것이었다(김기훈 외, 2001). 창립 회원 중에서 만주국 시기 조선인 이민사를 전공으로 한 사람은 김기훈이었다. 그는 재만 조선인의 이민 정책(1999·2001)과 이민 실태에 관한 연구(2010)를 하였으며, 만주의 재만 조선인 이민사에 관한 연구사(2006)도 발표했다. 재만 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김기훈을 위시하여 대부분이 농촌에 이주한 조선인 농민에 관한 연구였다. 이것은 조선인 대부분이 농촌에서 거주하였으며, 독립운동사와도 지리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독립운동사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인 이민사 연구에서 도시의 조선인을 연구한 선구적인 연구는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2004)의 연구였다. 이들은 각각 총론, 심양(봉천), 장춘(신경), 하얼빈의 조선인을 담당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과 달리 도시의 조선인의 경우에는 그 존재가 훨씬 더 다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주학회는 2004년 6월에 학회지 『만주연구』를 창간하였는데, 그 직전인 2004년 3월에는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정식 명칭은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구려연구재단이 설립되었다.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가 동북지역 3개 성과 연합하여 동북지역의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대규모의 연구 프로젝트였다. 동북공정의 과제영역은 일반 연구과제, 번역과제, 사료(檔案)정리과제, 응용과제, 자료실 구축으로 구분된다. 과제들은 위탁과제와 공모과제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위탁과제의 비중이 더 높았지만, 과제선정 내용이나 위탁상황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응용과제의 내

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과제들의 연구영역을 보면, 중국 강역이론 연구, 중국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중조관계사 연구, 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극동지역 정치경제 관계사 연구가 있었다.

한국 정부와 학계에서는 동북공정을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역사왜곡으로 간주하였다. 한국 정부는 동북공정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는 한편, 외교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구려역사재단을 설립하였다. 2001년부터 일본 정부도 매년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한국과 역사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6년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면서 고구려연구재단을 여기에 흡수통합하였다(이개석, 2005; 이희욱, 2005; 윤희탁, 2009; 신주백, 2009). 고구려연구재단이 공모한 연구 과제의 주제는 주로 고구려사와 발해사, 곧 고대사에 관한 연구에 치중하였지만 또한 발해 이후의 만주 연구, 특히 한중관계사 연구에도 미쳤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대사뿐만 아니라 중세 시기의 북방사 연구와 근현대 시기의 만주 연구가 봄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만주학회 회원들 중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이 되기도 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의 공모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지원을 받기도 했다. 만주학회 회원들이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로서는 임성모·한석정·정안기·김기훈·다나카 류이치가 공저자로 참가한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2009년)』이 있다. 공동연구자가 만주학회 회원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만주학회 회원인 이동진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수행한 연구로서 『중국 동북연구: 방법과 동향(2010년)』이 있다.

재만 조선인 연구 중 일본군 ‘위안부’, 독립운동가, 친일파 등에 관한 연구도 정부의 기관 또는 연구 기관의 과제로서 수행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연구는 2004년에 발족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다루었고,³⁾ 또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3) 2008년에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2010년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각각 발족되어 활동했다.

2015년에는 부산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건립되었다. 해외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연구를 지원하고, 한국독립기념관 부설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 체제는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수행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만주학회에서는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방법론적 지역주의’를 추구해왔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만주학회의 회원 구성이 다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주학회는 2000년 8월에 명청사 연구자들이 참가하였고, 2001년 2월에 ‘만주학회(회장 한석정)’를 창립했다. 이후에는 한국사 연구자들(근현대사, 조선시대사, 고구려사)도 참가하였고, 거란사 연구자도 참가하였다. 전근대 한국사 연구자들은 한중관계사 전공자들이었다. 청대사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봄을 일으키고 있는 청대사를 ‘한족 중심주의’가 아니라 ‘만주족 중심주의’의 시각에서 연구하는 ‘신청사(新淸史)’ 연구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은 ‘만주어’ 연구 모임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만주학회가 명청사 전공자의 합류 이후 또 한번의 학회가 확대되는 변화를 겪는데, 그것은 문학 전공자들의 참여였다. 이후 역사(전근대사와 근현대사)와 함께 문학이 만주학회의 학술대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학술대회의 논의를 넓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러한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만주학회가 ‘방법론적 지역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또한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만주학회가 방법론적 지역주의적 연구 경향을 보인 것은 창립 초기에 개최한 일련의 학술대회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학술대회(중국사학회와 공동 주최)의 주제는 “만주: 동아시아 변동의 핵”이었다. 2002년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주관)의 주제는 “동아시아와 만주(중국동북지역)”였다.⁴⁾ 2003년 8월에 개최된 제4차 학술대회(안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주관)의 주제는 “만주와 조선·조선인”이었다. 2003년 11월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육관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주관)의 주제는

4) 저자는 2003년 1월에 개최된 동계워크샵(제3차 학술대회)에 처음 참가하여, “신경(장춘)의 조선인”을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몽골 왕공의 관찰지였던 장춘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명청사 연구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다.

“만주: 통합과 저항 그리고 일상”이었다.

2004년 12월에 동아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동아시아 역사와 기억 속의 만주”였다.⁵⁾ 대회에서는 프라센지트 듀아라 시카고대 사학과 교수, 개번 맥코맥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 교수, 야마모토 유조(山本有造)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전임 소장,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교수 등이 참여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와 기억 속의 만주에 대해서 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듀아라는 “민족국가들 속의 제국주의-일본과 만주국”, 맥코맥은 “동북아의 공동체와 정체성-1930년대와 현재”를 발표했다. 2006년 5월에 육군사관학교개교60주년기념 행사로서 개최한 국제학술주제는 “동북아의 국가와 민족관계: 만주에 대한 역사적, 지정학적, 문화적 접근”이었다. 대회에서는 마리코 아사노 타마노이 등이 발표했다. 마리코 아사노 타마노이는 “‘진실’ 만들기: 만주국(Manchukuo)만들기에서 일본 인류학자들”을 발표했다(『만주연구』 5, 2006).

만주학회가 창립 초기에 아직 학회가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다수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만주학회가 ‘만주’라는 지역을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조망하려고 하는 곧 ‘방법론적 지역주의’를 지향하였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회 회원이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한국문학, 중국문학, 일본문학 연구자, 그리고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전공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만주’ 지역 연구는 ‘방법론적 지역주의’의 연구 대상으로서 적합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

5) 유사한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로서 2018년에 만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동아대학교 석당학술일 공동 주최)의 주제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바라본 만주-만주국”이었다.

6) 2008년에 만주학회 회원들의 글을 모아서 출판한 책 제목은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이었다.

II. 연구 주제와 범위

한국문학에서 시기적으로는 1931년 만주사변으로부터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후기를 다시 1942년 태평양전쟁을 전후로 하여 전쟁 전기와 전쟁 후기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 연구의 경우에는 두 시기 중에서는 전기가 더 많이 연구되었으며, 후기 중에서도 1942년 이후 곧 ‘최후기’에 관해서 가장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⁷⁾ 이것은 이 시기에 가장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최후기는 해방 직후의 시기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이 시기에 관한 역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데 반해서, 한국 문학 연구에서는 계몽기 시기와 함께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계몽기와 일제말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근대성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한다(한국문화과 사상연구회, 2012). 한국문학에서 일제말기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된 데는 또한 ‘탈식민주의’의 관점의 도입으로 만주가 새롭게 조명 받은 점도 작용하였다(김철, 2002; 이경훈, 2003). 1932년 만주국 성립 이후 조선의 자본가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포되었던 ‘만주 유토피아니즘’이 주목을 받았다(오문석, 2012). 곧 만주는 친일문학의 논리가 성립하는 매개가 되었던 것이다(윤대석, 2008; 오문석, 2012: 151).

일제말기 문학 가운데서 재만 조선인 문학이 주목을 받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월북작가에 관한 연구에 이어서 재만조선인 문학 연구가 문학사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기도 하고, 조선에서 거의 문학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주에서 문학 활동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것은 안수길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던 ‘北郷’이라는 문학장의 존재와 안수길의 일련의 문학 창작 활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향화, 2016). 전쟁 최후기의 조선과 만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는 조선에서는 민족지가 폐간되어 한글 신문으로서는 『매일신보』만 존재하였던 반면에 만주국

7) ‘최후기’라는 용어는 김재용(2018)에서 차용했다. 원문은 ‘일제 최후기’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전쟁 최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에서는 한글 신문 『만선일보』가 여전히 발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전쟁 최후기에 『만선일보』 문예란은 드물게 남아 있는 조선어 문학장이었다. 『만선일보』는 1939년 12월에서 1940년 9월까지 분량이 아세아문화사에 의해서 1988년에 영인본(전 5권)으로 출판되었는데 2017년에 한국교회사 문헌연구원에서 종래 마이크로필름 상태로 열람할 수 있었던 1937년 7월 이후의 『만몽일보』와 1940년 10월에서 1942년 10월까지의 『만선일보』를 영인(전 8권)하여 출판하였다. 앞으로 추가된 시기의 『만선일보』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최후기 시기에 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적으로는 규모(scale)에 따른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지역의 차이가 있었다. 먼저 규모에 따른 차이는 전국(국가), 성, 시·현, 촌(마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민사 연구의 경우에는 이민 정책에 관한 연구가 전국(국가) 규모의 연구라고 하면(김기훈, 1998, 2011; 조경우, 2014), 이민 사회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촌(마을) 규모의 연구라고 할 수 있었다. 대부분 농촌에 관한 연구였고, 도시에 관한 연구는 앞서 논급하였듯이 김경일 외(2004)에서 시작되었다. 도시의 재만 조선인 연구에서는 또한 친일파 연구가 있다. 친일파에 관한 연구는 2006년에 발족된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위원회’가 일련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였고,⁸⁾ 2009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주도하여 『친일파인명사전』을 발간하였는데, 친일파 중에는 해외 부분에서 만주에 거주하던 조선인도 포함되었다.

도시의 재만 조선인 중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했던 조선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건국대학(이정희, 2016b)’과 ‘만주육군군관학교(신주백, 2002)’가 있었다. 또한 최규하 등과 같이 ‘대동학원’에 재학했던 조선인들도 있었다(김민철, 1996; 박성진, 2009).⁹⁾ 만주육군군관학교 출신자 중에서는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있었다(염인호, 2015). 정일권을 대표로 하는 만주육군군관학교 출신자들이 한국군을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8) 관련 법률로서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다.

9) 이들 중에서는 자서전이나 구술사를 남긴 사람들도 있다.

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박정희를 대표로 하는 만주국 시기를 살았던 재만 조선인 엘리트들이 나중에 박정희 정권 아래서 ‘개발주의’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연구가 있다(한홍구, 2001; 한석정, 2010-2016; 박성진, 2016).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개인에 관한 연구로서는 주로 최남선 등과 같이 만주에 거주하였거나 만주를 방문하여 만주와 관련되는 글을 남긴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의 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텍스트 분석은 사상사 연구자와 문학사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인데, 현재 재만 조선인 연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만 조선인 중에서는 의사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조선인 의사에 관한 연구(신영전·윤호정, 2006; 신영전·박세홍, 2009)와 용정의과대학에 관한 연구가 있다(문미라·신영전, 2017), 도시의 재만 조선인 중에서 특정 직업인들에 관한 연구와 개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전자로서는 재만 조선인 음악가에 관한 연구(노동은, 2007-2009; 이경분, 2010)가 있고, 후자로서는 운동주에 관한 연구와 평전을 위시하여(송우혜, 2016), 작가론, 작품론 등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강제 동원된 재만 조선인에 관한 연구(조진, 2008, 2015)와 ‘일본군 위안부(강정숙, 1997; 박정애, 2016)’에 관한 연구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연구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의해서 구술사 편찬과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강정숙에 의하면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294명의 증언 중에서 약 33퍼센트, 그리고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출판된 2권의 일본군 군인과 군속의 증언집에서 약 30퍼센트가 만주 지역의 위안소를 증언하였다(강정숙, 1987: 157; 박정애, 2016: 9). 흔히 한국에서는 재만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개장수’를 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선인이 소위 ‘부정업’에 종사하였음을 시사하는데, 조선인이 종사한 부정업으로는 아편 밀매(박강, 2008)와 성매매 종사(이동진, 2005) 등이 있었다.¹⁰⁾

농촌 연구 가운데서는 조선인 농민을 수용한 특수 지역이었던 ‘안전농촌’

10) 현경준은 ‘유맹’ 등 몇몇 소설에서 아편 중독자와 밀매자 등 ‘부정업자’를 수용한 부락을 소재로 다루었다.

에 관한 연구(홍종필, 1998; 김주용, 2006, 2009b; 남영주, 2014)가 있었다. 지역에서는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였던 간도성이 가장 중요하였다. 전반기에는 치외법권이 아직 철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간도협약」, 「21개 조 요구에 의한 동몽·남만지역에 대한 특수권익」 등으로 인해서, 조선인들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서 권리가 달랐다. 이러한 중일전쟁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서 조선인의 지위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회에 관한 연구에서 김경일 외(2004)는 조선인의 유형을 외부(일본, 국가) 통합-내부(민족) 통합, 외부 통합-내부 배제, 외부 배제-내부 통합, 외부 배제-내부 배제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것은 이민사회학에서 이민자의 정체성을 나누는 유형(각각 다문화주의, 동화, 격리, 주변화)과 동일하지만, 단지 심리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적 관계라는 점에서 다르다. 극단적인 두 유형인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는 외부와의 관계에서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친일파 또한 내부와의 관계에서는 독립운동가와 마찬가지로 통합의 위치에 놓일 수도 있었다. 이것은 만주의 민족 관계가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하나의 차원만이 아니라 중국인과 조선인이라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었고, 양자의 관계는 다시 일본인과 중국인이라는 차원에 의해서 매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의 외부는 일본인과 중국인으로 이중화되어 있었다. 이것이 특히 만주국 시기 조선인에게 문제가 된 것은 일본인과 중국인의 관계가 변하였기 때문에, 중국인과 조선인의 관계가 변하였고, 이것은 또한 일본인과 조선인의 관계도 변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전공 영역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으로 구분하면,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이민정책사에 관한 연구는 정치사, 경제정책사와 기업사는 경제사, 이민사는 사회사, 문학사는 문화사에 각각 속한다. 현재 한국에서 만주국 연구의 논문 편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단연 문학 분야이다. 최근에 출판된 단행본 으로서는 만주국의 국책 문학에 관한 연구(안지나, 2018)가 있다. 문학 연구자

들은 문학 연구에서의 ‘문화적(매체적) 전환’ 이후 만주국 연구가 하나의 붐을 이루었는데, 특히 한국 문학 전공자들에게 만주국 시기의 조선인 문학-재만 조선인 작가의 문학과 만주를 재현한 조선인 작가의 문학-은 한국문학사의 지평을 넓혀 주었다.¹¹⁾

만주국 시기 조선인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소설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태준의 <농군>에 대해서이다(하재연, 2008). 이러한 논쟁은 사실 만주국 시기 조선인 문제에 대한 시각을 둘러싸고, 모든 학문 분야에 내재되어 있는 논쟁이다. 만주국 시기 조선인 문제를 규정하는 틀은 민족과 국가의 이중화의 문제로도 나타났다. 곧 ‘조선인 문제’는 하나는 조선인이 중국인, 일본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의 문제였으며, 다른 하나는 만주국이라는 ‘국가(만주국인)’에서 ‘조선총독부(조선인, 반도인, 선제)’, ‘일본제국(일본제국 신민)’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의 문제였다. 이러한 위치는 다시 법률상의 위치와 사실상의 위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만보산사건’과 ‘민생단사건’이 발생하였고, ‘치외법권 철폐’를 둘러싼 조선인과 조선총독부의 반대가 나타났고, ‘2등공민론’이 나타났다(윤휘탁, 2001; 정안기, 2015; 윤옥, 2016).

이것은 조선인에게 조선(만주와의 관계에서는 조선 내지), 일본 내지(조선과의 관계에서), 만주에 거주한다는 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였다. 이러한 민족 외부와 국가의 규정성이 작용한다고 해서, 민족 내부의 차이가 무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에게는 민족 외부적 차이와 민족 내부적 차이(계급)가 중첩되어 있었다. 이것은 만주국 시기 조선인이 복잡한

11) 한국 근대문학 연구자들에게 만주국 문학에 관한 연구가 붓물같이 쏟아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최근 들어 만주는 한국 근대문학 연구의 외연을 넓혀 준 중요한 문학적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만주 연구 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우리 문학사에서 단순히 암흑기라고 불렀던 일제 말기 문학을 재평가하겠다는 연구자들의 의지가 자리잡고 있다. 한설야의 <대륙>을 비롯해 일본어로 쓰인 일제 말기 주요 작품들도 상당수 우리말로 번역됐다. 연구자들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일제 말기 문학=친일 문학’이라는 편협한 시각이나 항일 독립운동의 요람이라는 만주에 대한 오랜 신화화 작업은 상당 부분 극복되었다(손유경, 2009: 192-193).” 한설야의 <대륙>의 번역은 김재용·김미란·노혜경(2003)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지형 속에 있었음을 뜻한다. 문학 연구자들의 논쟁은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다. 만주 연구 붐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조선인의 만주국 체험이 가지는 특이성, 곧 식민지 시기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일본의 점령지에 서의 점령지 주민과의 관계가 중첩된다는 점이 놓여 있다. 조선인의 정체성은 친일과 반일, 민족 통합과 민족 배제만이 아니라, 곧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로 양극화되고 그 중간 부분을 차지하는 일차원이 아니라, 친일파이면서 동시에 중국인에 대해서는 민족주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이차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만주국 체험은 1937년 이후 일본의 점령지가 확장됨에 따라서 화북지역, 화중지역, 화남지역, 나아가 남양지역, 동남아시아지역 등으로 확장되어 갔다(아마무로 신이치, 2018).

Ⅲ. 연구 자료와 방법

연구 자료로서는 먼저 문헌 자료와 구술 자료가 있고, 연구 방법도 자료의 성질에 따라서 문헌 연구 방법과 구술 연구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주국 시기에 관한 연구로서는 증언자의 연령 등으로 인해서 구술 자료의 수집과 구술 연구 방법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만주국 시기에 관한 구술사가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구술사 자료는 또한 희귀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구술사 자체의 정치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문헌 자료는 다시 공식적인 문헌(정부 자료와 신문, 잡지, 서적 등 공간된 자료)과 비공식적인 문헌(공간되지 않은 개인 자료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공식 문헌으로서는 『滿洲國政府公報』, 『盛京時報』, 『滿鮮日報』 복각본 등이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윤휘탁, 임성모, 한석정 등이 『만주국정부공보』, 『성경시보』 등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문학에서는 최정옥(2009)이 『성경시보』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만주국 조선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만선일보』이다. 만주국 조선인의 매체로서는 또한 『在滿朝鮮人通信』이 있었다. 『만선일보』와 『재만조선

인통신』은 친일 매체라고 알려져 있지만, 조선인민회와 조선인협화회가 그려하였듯이, 『만선일보』도 조선인 내부의 통합에 기여한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것은 검열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의 재만 조선인 문학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 내부의 통합에 기여했다고 해서, 민족 외부와의 관계가 도외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 김경일 외(2004) 프로젝트팀이 다렌, 선양, 창춘, 하얼빈의 도서관 등지에서 재만 조선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자료를 복사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출하였다.¹²⁾ 위 자료들은 정부의 통계 자료 등이 중심이었는데, 현재 만주국 재만 조선인 연구에서 재현(담론)에 관한 연구가 많고 사실 자료가 적은 상황에서, 만주국 정부가 공포한 통계 자료와 조사 자료 등을 이용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의 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서 김기훈(2008)이 있다.

재만 조선인에 관한 구술사 자료로서는 김풍기 외(2006), 김창호 외(2007·2008), 김종혁 외(2009), 김도형(2009) 등이 있다. 김풍기 외와 김창호 외는 강원도청의 의뢰를 받아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흑룡강성, 요녕성에 거주하는 강원도 출신의 재만 조선인의 구술 자료를 수집해서 편찬한 것이다. 도청에서 출신 도민들의 만주 이민사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는 사례로서는 또한 충청북도의 사례가 있다(김주용, 2013). 김종혁 외는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연구단(연구책임자 김민남)이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된 “근대교육현장성 위기와 지성의 대응: 대구경북과 간도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성과물의 일부이다. 이들은 2004년 8월(용정, 연길, 단독), 2006년 8월(집안, 통화, 유하, 해룡, 반석, 길림, 교하), 2006년 10월(안동, 신빈, 환인), 2007년 4월(길림성 교하, 특히 액목현), 2008년 1월(연길, 용정, 목단강, 왕청)에 조사를 했다(조정봉, 2007; 이경숙, 2011). 김도형(2009)은 식민지 시기 만주에 살았던 조선인들의 생활사를 복원하기 위한 토대 작업으로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연길, 심양, 장춘 등지에 소재한 조선족의 구술

12) 만주국 시기 이전의 중국에 있는 만주 연구 자료에 대한 소개로는 안지영·허혜운(2014)이 있다. 자료 소개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못하였다.

자료를 수집하여 편찬한 것이었다. 김도형 연구팀은 4권의 구술자료집과 함께 연구서를 출판하였다. 연구서에는 모두 8편의 단독 논문이 실려 있다. 후술할 정미량(2007)도 수록되었다.

이출지의 경우에는 도 규모에서만 아니라 군 규모에서도 이민사를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주 조선인 마을 중에서는 출신 도를 나타내거나 심지어 출신 군을 나타내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¹³⁾ 재만 조선인의 삶에서 성, 현, 마을 등 어떤 규모가 중요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령, 조선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군 규모가 중요하였는다면 규모가 중요하였는가를 하는 논쟁이 있는데(윤해동, 2006; 지수걸, 2007), 만주국 재만 조선인의 상황에서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와 조직에 관한 연구(거시적 연구)와 사건과 개인에 관한 연구(미시적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후자는 사례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현재 연구의 추세는 제도와 조직에 관한 연구에서 사건과 개인에 관한 연구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학 연구의 작품론과 작가론에서 많다. 양자를 매개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적 제도와 조직, 실천(공연) 등에 관한 연구일 것이다. 이것은 매체 연구와 다양한 문화적 공연 활동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되는 연구로는 만주국 위문대 공연(이진아, 2018), 조선 극단의 순회 연극을 포함하는 만주국의 조선인 연극(이복실, 2014·2018), 라디오 방송과 영화(서재길, 2007·2014)에 관한 연구가 있다.

작품론, 곧 문학 텍스트 분석에서는 문학 텍스트와 그것의 컨텍스트로서의 사회를 함께 다루는, 곧 문학사회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있다. 1920년대 후반 무순 탄광의 노동자를 다루었던 〈합숙소의 밤〉에 관한 연구이다(유수정, 2009; 김창호, 2016). 한설야가 1920년대 후반에 자신의 경험을 살

13) 하나의 예로서 안도현 장흥향 신탄촌(새마을, 현재는 명월진 신탄)은 경남 밀양의 40호, 합천의 30호, 거창의 30호가 이주하여 형성한 집단부락에서 출발한 조선족 마을이다. 이들은 1938년 3월 19일 대구역에서 집결하여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열차를 타고 4일만에 안도현에 도착했다고 한다. 당집과 상여를 여전히 보존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악무'를 문화혁명 이후 재건하여 동북 3성의 조선족들에게 새롭게 전파했다. 고유의 민속놀이를 계승하여 마을이 성립이 된 날을 최대 명절로 하여 그 날은 모두가 쉬면서 공연과 잔치를 벌인다.

려서 창작한 단편소설 〈합숙소의 밤〉은 처음 일본어로 『만주일일신문』에 발표되었다가 후에 다시 조선어로 조선 매체에 발표되었는데 두 판본의 내용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판본의 차이의 맥락을 연구하는 것도 또한 작가론과 관련이 되면서, 문헌사회학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의 사례로서 안수길이 해방 후에 해방 전에 발표한 소설을 개작한 사례에 대한 연구가 있다(한수영, 2005).

하나의 자료를 정밀하게 읽고 논문으로 작성한 사례로서는 이형찬(1998), 김기훈(2008), 윤휘탁(2010), 이동진(2007·2013), 정미량(2007·2010) 등이 있다. 이형찬과 김기훈은 만주국 임시조사국이 1936년 남만주 21개 현을 조사한 자료 중에서 1936년 2월 하순부터 약 75일간 연결현 陽城村의 두 마을인 A툰(柳亭村)과 B툰(上村)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자는 중국인 지주와 조선인 소작인으로 이루어진 마을이었고, 후자는 조선인 농민들로 이루어진 마을이었다(김기훈, 2008: 118-119). 윤휘탁은 중국조선족청년학회가 1992년에 수집·정리한 『중국조선족이민실록』(연변인민출판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1989년 1월 북경조선족청년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북경대학과 중앙민족학원 소속 대학생과 대학원생 30여명이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길림성 거주자 19가구, 요녕성 거주자 16가구, 흑룡강성 거주자 33가구 등 총 68가구에 대한 구술 자료이다. 다만 이 구술에서는 저자도 지적하였듯이 중국인의 반응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여기에는 구술자와 구술채록자 사이의 관계라는 구술의 맥락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진(2007)은 해방 전후 장춘의 조선인의 기억에 관한 연구에서 김석형 구술, 이항규 녹취·정리로 2001년에 출판한 『나는 조선공산당원이오』(선인)를 자료로 해방 전 장춘(新京)의 유일한 조선인 중등학교였던 신경실무학교에 관해서 연구했다. 김석형은 신경실무학교의 학생이었는데 현재 그 학교에 대해서 증언한 유일한 사람이다. 이동진(2013)은 1996년에 출판한 정일권의 자서전인 『정일권회고록』(고려서적)과 2000년에 출판한 신숙의 자서전인 『강재 신숙 생애와 독립투쟁: 나의 일생』(국학자료원)을 자료로 이용하여 두 사람의 다른 기억이 어떠한 기억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

였다.

정미량은 김도형(2009)에 참가하였는데, 2006년 4월에 자료 조사 중에 장춘보통학교(관성구조선족소학교) 동창회장을 만나서 증언(구술 자료)과 관련 문헌 자료를 엮어 만든 자료집을 구하였고, 9월 1일 개교기념일에 개최되는 제 85회 총동창회에 한국에 거주하는 동창들이 참가하게 전해주라는 말을 듣고, 수소문한 끝에 네 분의 소재를 알게 되어 구술 자료를 채록하여 해방 전 장춘보통학교에 관한 연구에 이용하였다. 해방 후 장춘보통학교의 후신인 관성구조선족소학교에 대한 논문에서는 미간행도서인 장춘시관성구조선족소학교동창회가 2008년에 편찬한 『長春市寬城區朝鮮族小學 變遷史 大綱附錄』과 차철구가 2009년에 편찬한 『長春朝鮮族』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개인적 기록물(다큐멘트)로서의 일기, 편지 등과 같은 자료를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 심연수의 일기문에 관한 연구 사례가 있다(우상렬, 2006; 이성천, 2016-2018).¹⁴⁾ 심연수(1918-1945)의 일기는 그가 동흥중학교 4학년이었던 1940년 1년간의 일기가 남아 있다. 5월 수학여행 기간과 8월 고향 강릉 방문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일기를 작성하였다. 우상렬은 일기를 지, 정, 의의 세계로 구분하고 그것이 그의 시 세계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설명하였다. 文如其人(시와 일기의 관계가 같음)의 면모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 좀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성천은 심연수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면서 심연수의 일기를 자료로 하는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심연수가 ‘동아협동체’ 건설이라는 일본의 국책사업에 동조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이성천(2016)에서는 1940년 11월 16일 ‘용정극장’에서 베를린올림픽에 관한 독일 기록영화 <민족의 제전>을 관람하였는데, 일기에는 마라톤 우승자의 이름이 키테이 손이라든가, 이때의 마라톤 시상식에 거행된 국기와 올려퍼진 국가가 일장기와 기미가요였던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으며, 삼단뛰기 금메달 수상자가 다지마 나오토(田島直人)를 ‘자기편’으로 기술했음에 주목하였다. 이성천(2018)에서는

14)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조선인 연구에서 일기를 자료로 이용한 연구로서는 조선족 변사(辯士) 海元(1937-?)의 소학교 4학년부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를 자료로 한 염인호의 3편의 논문이 있다.

심연수 일기에 등장하는 <민족의 제전>과 함께 최인규 감독의 두 편의 조선 영화 <국경>과 <수업료>, 그리고 일본인 감독의 일본 영화 <흥과 병대>를 추가하여 이들이 친일영화 또는 국책영화였다는 점에서 심연수를 ‘민족시인’ 또는 ‘저항시인’으로 보는 선행 연구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기 자료를 발굴하여 출판한 사례도 있다(이채문 외, 2017). 최근에는 사진 자료가 연구에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구술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활용되거나, 엽서 사진이나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나오는 사진을 연구에 이용한 사례도 있고, 공식 사진을 모아 서 사진첩을 발행한 사례도 있다(박환, 2017; 박환·박호원, 2017; 강인혜, 2019).¹⁵⁾

IV. 연구 시각

만주국 조선인 이민사 연구의 시각으로서 가장 많은 것은 디아스포라적 시각이다. 이것은 김경일 외(2004)에서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용되는 시각이다. 디아스포라 시각이 재만 조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만주’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시각으로서는 변경사적 시각, 헤테로토피아적 시각, ‘사건적 장소’ 시각, 그리고 ‘만주 모던’ 시각을 들 수 있다. 이동진(2010)은 만주와 재만 조선인에 대한 연구 시각으로서 변경사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재만 조선인 연구에서 변경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로서는 또한 문미라·신영전(2017), 신영전·박세홍(2009)이 있다. 변경사 시각이 한국사 연구자들에게서는 그다지 수용되지 않는 개념인데, 명칭사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김선민, 2013·2015), 최근에 한국사 연구자도 변경사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오경환, 2012; 윤해동, 2017; 정다함, 2017).

이동진(2010)은 만주 지역 연구를 위한 변경사 시각의 하위 주제로서 역사적 시각, 비교적 시각, 교류적 시각, 소수민족적 시각을 구분하고, 변경 만주의 정책적(실천적) 함의(지향점)로서 지역 협력(지역 공동체)을 제시하였다.

15) 박환(2017), 박환·박호원(2017)에 대한 서평으로 장세윤(2017)이 있다.

역사적 시각은 변경 만주의 형성사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주를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몽골, 러시아, 조선과 접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변경 만주는 변경 연해주, 변경 한반도 북부, 변경 몽골 동부와 함께 변경 지역을 구성한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변경 벨트의 중심에 만주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중국 내지의 다수 민족인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 등 소수 민족의 거주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만주족 또는 다른 소수민족은 한반도 북부, 연해주, 몽골 동부에도 거주하고 있었고, 몽골족은 만주 서부에도 거주하고 있었다. 변경 만주는 19세기 후반에야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 정부의 행정기관이 설치되게 되었지만, ‘마적’이라고 불리는 국가 권력 바깥에 존재하는 집단들이 20세기 전반기까지 존재했다.

변경 만주는 변경적 성격으로 인해서 구심력(청 정부)과 원심력(일본과 러시아)이 모두 작용하였다. 전자를 ‘내지화’라고 하면, 후자는 ‘발칸화’라고 할 수 있었다. 사실 두 현상은 맞물려 있었는데, 후자로 인해서 전자가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만주가 두 차례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장이 된 이유이기도 했다. 후자는 ‘만주 문제’로서 나타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재만 조선인 문제’가 나타났다. 일본이 ‘만주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국’을 수립함에 따라, ‘재만 조선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축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만주국에서의 재만 조선인의 지위 문제를 둘러싸고 ‘재만 조선인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이것은 곧 만주국 정부와 조선총독부가 두 차례 담판을 하게 하였는데, 제1차 담판(1936년)에서는 재만 조선인의 교육권을 만주국 정부에게 귀속시키는 대신에, 만주국 정부에 조선인 관리를 등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2차 담판(1941년)에서는 다시 재만 조선인의 교육권이 만주국 정부의 일원화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두 담판은 만주국 정부의 ‘滿鮮一如’ 정책과 조선총독부의 ‘內鮮一體’ 정책이 충돌한 것이며,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조선인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후자의 논리가 우선되었음을 뜻한다(다나카 류이치, 2008; 이동진, 2012·2016; 임성모, 2009a·2009b; 정안기, 2011·2014·2015; 조정우, 2014·2016).

미국 위스콘신대학 교수였던 터너(1861-1932)의 ‘변경 테제’에서는 미국의

서부 변경(터너가 말하는 서부 변경은 태평양연안의 미국 서부 지역이 개발되기 이전 미시시피강 서쪽인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었음)이 미국을 만들었다고 한다. 곧 미국의 개인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미국의 특성을 이루는 정신의 기원이 유럽의 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동부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했던 서부 변경이었다는 것이다. 과연 변경 만주(동북 변경)가 중국에서 미국의 서부 변경과 같은 역할을 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¹⁶⁾ 만주국의 유산이 중국에서(강진아, 2008), 일본에서(임성모, 2009), 한국에서(한석정, 2016)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연구가 있다. 그것은 만주국이 남긴 물질적인 유산(안산체철소)이거나, 엘리트의 연속성에서 설명하는 것인데, 한석정의 연구는 그것에 더하여 만주국의 문화적 효과—‘하이 모더니즘’—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문화는 의식 또는 무의식으로서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귀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재만 조선인 중 일부는 중국공산당의 군대(인민해방군)에 가입하여 중국 내전에 참가하였고(중국 혁명과 국가 건설 과정에서 재만 조선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어서 한국전쟁에도 참가하였다(염인호, 2010).

비교적 시각은 변경 만주를 다른 변경 지역과 비교하는 것이다. 중국의 서남 변경, 서북 변경, 해양 변경 등과 비교하는 것이고, 또한 러시아의 시베리아 변경, 러시아와 일본의 사할린, 쿠릴 열도, 일본의 북부 홋카이도 변경, 남부 오키나와 변경, 기타 해양 변경, 한국의 북부 변경, 해양 변경 등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만주국을 종전 후의 오키나와와 비교하는 연구가 있다(임성모, 2008). 비교사 시각에서도 국가 중심이 있고(중심에서의 정책), 사회 중심(변경 사회)이 있다. 교류적 시각은 변경의 중요한 기능인 변경에서의 교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만주는 만주국 수립 이후에는 더 이

16) 변경적 시각에서 만주사 연구를 개척한 사람은 오웬 라티모어(Owen Lattimore, 1900-1989)였다. 오웬은 1932년에 간행한 만주에 관한 저서의 부제를 ‘갈등의 요람(Cradle of Conflict)’이라고 부쳤다. 라티모어의 변경적 시각은 1940년에 출판한 『중국의 내륙 아시아 변경들』에서 잘 드러났다. 라티모어는 초원 몽골을 북방 아시아의 핵심 지역으로서 중시하였다. 내륙 몽골은 동으로는 만주 혼합지역과 서로는 중국 투르케스탄(신강)의 오아시스와 사막, 고원 티벳을 이어주는 위치에 있다. 청의 만주 변경을 중시한 연구로는 Lee(1970),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으로서 아무르강 유역을 중시한 연구로는 Zatspine(2017)이 있다.

상 변경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만주의 부상은 교류의 장을 만주 외부로까지 확장하였다. 만주국 이후 만주국과의 교류에서 부산이 중요하게 부상된다고 하는 연구가 있다(한석정, 2006). 교류의 과정에서는 교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만주는 중국에서 가장 철도망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이것이 만주의 지역적 중요성을 옹변하는 것이기도 했다(송한용, 2008; 김지환, 2015).

소수민족적 시각은 변경의 한 특징이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점이고, 만주는 또한 ‘복합민족국가’로서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였다. 곧 만주에서는 국가 문제 안에 다시 민족 문제가 있었다. 재만 조선인을 소수민족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은 재만 조선인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 된 후에 적용될 수 있다. 소수민족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재만 조선인의 소수민족(‘조선족’)으로서의 탄생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고, 재만 조선인을 소수민족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소수민족과의 비교와 교류 등에 대한 시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적 시각에서는 재만 조선인을 러시아인이나 유태인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윤휘탁, 2012a·2012b).

‘다수 민족’과 다른 ‘소수 민족’과의 관계 등을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데, 만주국에서는 ‘다수 민족’이 사실상은 ‘소수 민족’이고, ‘소수 민족’인 일본인이 사실상의 ‘다수 민족’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인은 ‘2등 시민’이라고 해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민 연구에서 나타나는 ‘소수민족 중간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재만 조선인의 ‘다수 민족’과의 관계가 만주국 건국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랐다는 점에서, 그리고 만주국 건국 이후에도, 다시 만주국과 조선총독부의 협상에 의해서 만주국에서의 조선인의 지위가 변하였다는 점에서 ‘2등 시민론’을 ‘고정적인 시점’에서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주에 대해서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을 적용한 사례로서는 아마무로 신이치(2009)가 있었다. 그는 만주를 “거기에 감으로써 완전히 다른 체험, 완전히 다른 의식을 가지게 되는 헤테로토피아”라고 했다(곽은희, 2014: 139). 영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만주와 헤테로토피아”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발표문 일부는 논문으로 완성되어 『인문연구』 74호(2014)에 7편

(곽은희, 김미경, 노상래, 백승숙, 서재길, 이영희, 홍은숙)이 게재되었다.¹⁷⁾ 주로 역사, 철학, 문학 연구자들이 참가하였지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문학 연구자들이었다.

헤테로토피아는 푸코가 제시한 개념이었다. 푸코는 1966년 봄에 출판한 『말과 사물』의 첫머리에서 보르헤스의 소설에 나오는 중국 백과사전에서의 동물들을 열네 등급으로 분류한 사례를 서술하면서, ‘통사법’을 무너뜨리는 헤테로토피아라고 한 후에, 다시 말의 원리-통사법-로부터 공간의 원리-배치-로 전환하여, 일상적인 공간 배치와 다른 공간 배치-말과 사물이라는 통사법에서의 배치에 대한 유비로서-를 지칭하여 헤테로토피아라고 했다.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와 대립쌍을 이루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푸코는 다시 그해 말에 발표한 〈유토피아와 문학〉이라는 제목의 방송용 강연 원고에서 공간의 원리로서의 헤테로토피아를 여섯 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여섯 번째 항목이 ‘환상의 헤테로토피아(매음굴)’와 ‘보정의 헤테로토피아(식민지)’라고 했는데 재만 조선인의 일부에게는 전자로서, 또 다른 일부에게는 후자로서 만주는 헤테로토피아였을지 모른다.

만주의 지역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또 다른 시각으로서 ‘사건적 장소’라는 개념이 있다(차성연, 2009: 125). 바디우에게 ‘사건’은 “상황, 의견 및 제도화된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도래시키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것은 이미 굳은 인식만을 남기기 때문에 어떤 진리도 산출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진리와 질서 속에는 공백이 존재하는데, 잉여적 존재였던 것이 우연히 출현하는 사건이 진리를 촉발한다(바디우, 2001: 김영삼, 2016: 66). ‘사건적 장소’는 시스템 내의 공백,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사건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시스템은 바디우의 개념으로서는 ‘하나로 썬하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시스템을 식민주의로 치환해 본다면 만주를 사건적 장소라고 하는 것은 탈식민의 공간임을 뜻한다. 이 또한 문학 연구자로서, 재만 문학을 분석하면서 문학에서의 만주 표상을 긍정

17) 학술대회 발표 논문 중에서 다른 잡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손승희(2014)가 있었고, 만주 연구에서 헤테로토피아 시각을 적용한 다른 논문으로는 이경래(2015), 조정우(2015), 박옥순(2017)이 있다. 김학중(2015)는 ‘다른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V. 향후의 과제

현재 전자자료 검색에서 ‘재만 조선인’ 항목을 입력하면 296편의 논문이 검색되는데, 대부분은 문학 연구자들의 논문이다.¹⁸⁾ 왜 문학 연구자들에게 ‘만주국 붐’ 또는 ‘재만 조선인 문학 붐’이 일었는가 하는 데 대한 지식사회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지경이다.¹⁹⁾ 이것은 사실과 재현 중에서 재현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음을 뜻하는데, 사실에 관한 연구가 재현에 관한 연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만주국 시기 조선인 연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문학과 사실과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작품이나 작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와 작가의 삶이 영향을 받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문학 연구자들이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역사학 연구자들의 연구를 인용하기는 하지만, 사실(사회)의 지평보다는 재현(문학)의 지평이 더 넓게 존재하고 있으며, 문학 내부에서 논쟁이 있지만, 그 논쟁이 사실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논쟁이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번 연구사 정리를 하면서 저자는 문학 연구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만보산사건’에 관한 연구가 역사학자와 문학자에 의

18) 이기영의 단편소설 <처녀지>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처녀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저자가 기존 연구로 드는 예만으로도 5편(직접 제목에 처녀지를 표기한 것은 3편)을 들었다(이경재, 2012: 107). 만주국 시기 재만 조선인 문학, 특히 1940년대의 재만 조선인 문학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특히 최근에 한국 문학 전공자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윤동주 외에 또 한명의 재만 조선인 시인 심연수가 발견된 것도 이러한 재만 조선인 문학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자검색자료로 ‘심연수’ 항목을 입력하면 203편의 논문이 검색된다.

19) 만주를 방문한 조선인 문학가의 수가 137명이 확인되고 그 가운데 시인이 30명이 넘는다고 한다(전월매, 2009b). 서정주의 8개월 정도의 짧은 만주 체험이 그의 시와 생애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 맥락과 함께 사회적 맥락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오양호, 1994; 박수연, 2013; 김진희, 2014; 최현식, 2014; 전월매, 2014; 박옥순, 2017).

해서 많이 연구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실 만보산사건에 대한 문학 텍스트가 많이 생산되고, 그것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만보산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화교배척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보산사건은 발단이고 그것의 중심은 화교배척사건이었다. 중요한 것은 만보산사건이 왜 화교배척사건으로 이어졌는가 하는 것이다.²⁰⁾

문학 텍스트에서 다루는 만보산사건은 통합적인 만보산사건이 아니라 화교배척사건과는 분리되는 만보산사건, 곧 만주에서의 사건이었다. 만보산사건이 화교배척사건으로 비화되는 데에는 만주의 조선인 압박에 대한 조선 내지에서의 여론이 있었다. 그 여론은 중국인을 타자화하는 맥락 위에 있었다. 만보산사건에서의 조선인의 시선은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와 중국인을 보는 시선과 얼마나 달랐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문학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만보산사건을 화교배척사건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문학에서는 그나마 다양한 문학 텍스트가 있어서 텍스트를 비교하는 논의가 가능하였지만, 역사에서는 아직 화교배척사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부분은 중국사 전공자들 이거나, 일본과 중국에서 이루어졌다(강진아, 2004, 2012; 손승희, 2009; 박정현, 2004, 2014). 1931년의 화교배척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綠川勝子, 1969; 菊治一隆, 2007; 趙景達, 2008; 李正熙, 2012).²¹⁾ 이와 관련하여 문학과 역사학에서 만보산사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보산사건이 한국사에서나 동아시아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만보산사건이 여전히 망각 속에 있는 것은 연구와 현실과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0) 만보산사건과 화교배척사건의 통합으로서의 만보산사건을 ‘만보산사건 및 조선내배화사건(綠川勝子, 1969)’, ‘만보산-조선사건(菊治一隆, 2007)’, ‘Post-Wanposhan Riots(Kim, 2010)’ 등으로 표현하였다. 화교배척사건에 대해서는 조선내배화사건, 화교학살폭동(菊治一隆, 2007), 한국배화참안(叢成義, 2002) 조선배화사건(趙景達, 2008), 조선의 배화폭동(손승희, 2009), 배화사건(李正熙, 2012), 화교배척(김희용, 2009), 화교배척사건(박정현, 2014) 등으로 표현되었다.

21) 조선에서의 ‘화교배척사건’은 1931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1927년에도 발생했다(강진아, 2004; 박정현, 2004; 이정희, 2016a). 그러나 화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1931년의 ‘화교배척사건’ 곧 만보산사건이었다(이정희, 2016a).

재현에서의 논쟁은 문학 내부적으로 물론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문학 외부적으로도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에서의 논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주국 조선인에 관한 사실로서의 연구가 왜 어려운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곧 왜 문학 연구자들은 만주에 많은 매력을 느꼈는데, 역사 연구자들은 그렇지 못하였는가, 왜 문학에서는 만주 연구가 중심으로 진입하였는데, 역사 연구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학에서는 ‘탈식민지성’과 같은 논의가 활발하지만 역사 연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또 하나의 이유로서는 문학이 ‘방법론적 지역주의’에 더 다가가 있는 반면에 역사는 아직도 ‘방법론적 국가주의(민족주의)’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문학에서는 문학 텍스트의 사실성으로 인해서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넘어설 수 있으나 역사에서는 사실성 자체가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의해서 배제되고, 은폐되고, 축소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만주국의 조선인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국가주의’를 해체할 필요가 있다. 곧 조선인을 조선인만으로서가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몽골인 등과 같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의 다양한 삶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국가주의’와 함께, 거시적으로는 ‘방법론적 지역주의’, 미시적으로는 ‘방법론적 지방주의(methodological localism)’를 추가하여 ‘다중 규모 접근(multi-scalar approach)’에 의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박배균 외, 2013·2017).

참고 문헌

- 강인혜, 2019, 「다민족 개척자: 만철 사진전문지 『만주그래프(滿洲グラフ)』와 이에 표상된 조선인 부락」, 『미술사학』 37
- 강정숙, 1997, 「일본군 위안소의 지역적 분포와 그 특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 강진아, 2004, 「중일 무역마찰의 전개와 조중관계의 변화」,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8, 「중국과 소련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전후 만주의 유산」,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_____, 2012, 「만주사변 전후 재한 화교 문제의 양상: 조선총독부 외사과와 재한 중국영사관 간 왕복문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20
- 고명철, 2008, 「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서 일제말의 ‘만주 서사’: 이태준의 〈농군〉과 한철야의 〈대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논총』 49
- _____, 2008, 「일제말 ‘만주(국)의 근대’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풍경: 유진오의 「신경」과 이효석의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7
- _____, 2015a, 「김만선의 ‘만주 서사’: 해방 직후, 재만조선인, 만주의 중층적 현실 〈이중국적〉, 〈한글강습회〉, 〈압록강〉, 〈귀국자〉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0
- _____, 2015b, 「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서 일제말의 ‘만주 서사」, 『한국문화논총』 28
- 고승룡, 2018, 「만주국시기 동만지역 일위특무조직과 특무 밀정들의 침략죄행연구」, 『한국보훈논총』 17(4)
- 곽은희, 2014a, 「감성으로 기억하는 만주: 만주 소재 대중가요 가사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8
- _____, 2014b,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 『인문연구』 70
- 구미정, 2016, 「망국과 실항의 한(恨), 만주 디아스포라를 돌아보다: 1930년대 ‘만주개척단’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72
-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2004, 『동아시아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 김정춘·김영웅, 2009, 「일제강점기 간도 체육 및 스포츠 변천과정: 《간도신보》의 기사분석을 중심으로(1925-1937년)」, 『체육과학연구』 20(4)
- 김기훈 외, 2001, 「만주국사 연구의 국제적 동향」, 『중국사연구』 16
- 김기훈, 1998a, 「1930년대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주 정책」, 『전주사학』 6
- _____, 1998b, 「일제의 조선인 만주이주정책 논쟁: 1932-1934」, 『한국민족운동

- 사연구』 20
- _____, 2002, 「일제하 '만주국'의 이민 정책 연구 시론」, 『아시아문화』 18
- _____, 2006, 「한인의 만주 이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백산학보』 76
- _____, 2008, 「만주국 시대 재만 조선 농민의 경제 상황: 延吉縣 陽城村 B屯의 조사 자료 분석」, 『만주연구』 8
- _____, 2011, 「만주국 시기 조선인 이민 담론의 시론적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31
- 김도형 엮음, 2009, 『식민지 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구술자료집 1-4』, 선인
- 김려실, 2007, 「조선인 영화의 만주 유입: '만선일보'의 순회 영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2
- 김미경, 2014, 「상상계와 현상계의 사이: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하얼빈」, 『인문연구』 70
- 김미란, 2009, 「만주, 혹은 자치에 대한 상상력과 인수길 문학」, 『상허학보』 25
- _____, 2011, 「'낙토' 만주의 농촌 유토피아와 공간 재현 구조: 후기 재만 조선인 문학의 자연/농촌/고향 표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3
- 김미선, 2009, 「식민지시대 조선여성의 제국 내 이주경험에 관한 연구: 양충자(중국 천진)와 이종수(만주국 안동)의 구술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11
- 김민철, 1996, 「만주대동학원 : 만주국의 관료를 꿈꾸는 조선인 대동학원 출신자들」, 『민족문제연구』 12.
- 김선민, 2013, 「한중관계사에서 변경사로: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관계」, 『만주연구』 15
- _____, 2015, 「훈춘, 청과 조선의 변경」, 『만주연구』 19
- 김승태, 2007, 「일제 말기 만주지역 한인기독교인들의 신사참배 거부항쟁」,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50
- 김신정, 2017, 「이중언어/다언어상황과 조선어 시쓰기의 문제: 윤동주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7
- 김 영, 2003, 「'滿洲國'에서의 일제의 米穀政策과 이주 조선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7
- 김영삼, 2016, 「'객관적 폭력'의 비가시성과 배제되는 식모들의 목소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1)
- 김영주, 2011,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인식과 만주성 연구」, 『한국 문학논총』 58
- 김영주, 2013, 「'만선일보'의 젠더적 특징과 의미: 수기와 시를 중심으로」, 『어문학』 120
- 김윤미, 2009, 「일제의 '만주개척' 정책과 조선인 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 17
- 김윤미, 2010, 「전시체제기 조선인 '만주개척청년의용대'에 관한 연구」, 『한일민족

- 문제연구』 18
- 김응교, 2017, 「신경에서 지낸 시인 백석」, 『외국문학연구』 65
- 김장선, 2017, 『『만선일보』라는 문학장과 이기영의 〈처녀지〉』, 『만주연구』 23
- 김재용, 2008, 「한설야의 ‘대륙’과 만주 인식」,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_____, 2011, 「인수길의 만주 체험과 재현의 정치학: 국민국가적 체제 내에서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만주연구』 12
- _____, 2012, 「만주 시절의 백석과 현대성 비판」, 『만주연구』 14
- _____, 2012, 『협력과 저항: 일제 말 사회와 문학』, 소명출판
- _____, 2014, 「혈통주의적 ‘내선일체’를 통해서 본 만주와 만주국: 일제말 만주로 재현된 장혁주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5
- _____, 2015, 「해방 직후 염상섭의 만주 재현의 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50
- _____, 2016, 『풍화와 기억』, 소명출판
- _____, 2018, 「일제 최후기 조선문학과 중국」, 『현대문학의 연구』 65
- 김재훈, 2003, 「‘제도’로 본 한국인의 만주지역 정착」, 『사회연구』 6
- 김종욱, 2008, 「‘거간’과 ‘통역’으로서의 만주 체험」, 『한국현대문학연구』 24
- 김종혁 외, 2009, 『간도의 삶과 교육』, 사람과사람
- 김주용, 2006, 「만주지역 한인 안전농촌 연구: 영구, 삼원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38
- _____, 2008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31
- _____, 2009a, 「만주지역 도시화와 한인이주 실태: 봉천과 안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5
- _____, 2009b, 「만주 ‘河東安全農村’의 설치와 운영」, 『백산학보』 84
- _____, 2009c, 「1930년대 간도지역 한인의 집단이주와 삶」, 『한국학연구』 21
- _____, 2013, 「일제강점기 충북인의 만주이주와 생활」, 『중원문화연구』 20
- _____, 2019, 「만주국 시기 발해농장의 설립과 독립운동유적지 보존방안: 한인 이주 경제공동체의 실현」, 『한중관계연구』 5(2)
- 김준현, 2016, 「한국의 문학/지식장에서 ‘만보산 사건’이 기억되어 온 몇 가지 방식」, 『한국문학연구』 51
- 김지영, 2013, 「‘개척’과 ‘갱생’, ‘신민-되기’ 사이의 미묘한 거리: 장혁주의 ‘어느 독농가의 술회’, 「순례」 『개간』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15
- 김지환, 2015, 「만주 간선철도망 형성의 역사적 회고」, 『만주연구』 20
- 김진희, 2014, 「제국과 식민지의 경계의 텍스트: 1930년대 문인들의 만주행」, 『한국문학연구』 48
- 김창호 외 편저, 2007, 『재증강원인생활사 조사연구: 중국 흑룡강성(강원학 학술총서 5)』, 강원도강원발전연구원.

- 김창호 외 편저, 2009, 『재중강원인생활사 조사연구: 중국 요녕성(강원학 학술총서 9)』, 강원도·강원발전연구원.
- 김창호, 2011,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변형, 리후이잉의 ‘만보산’ 읽기」, 『만주연구』 11
- _____, 2016, 「푸순(撫順)탄광과 한중소설」, 『만주연구』 22
- 김 철, 2002, 「몰락하는 신생(新生):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誤讀)」, 『상허학보』 9
- 김풍기 외 편저, 2006, 『재중강원인생활사 조사연구: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강원도·강원발전연구원』
- 김학중, 2015,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다른 공간’ 문제 연구」, 『비교한국학』 23(1)
- 김향화, 2015, 「만주 재현 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만주국 후기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6
- 김향화, 2016, 「‘북향(北嚮)’과 새로운 문학장의 발견」, 『어문논총』 67
- 김호웅, 2006, 「대일(대일) 협력과 저항의 몇 가지 양상: 재만 조선인의 문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9
- 김희용, 2009,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화교배척」,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영주, 2014, 「기억속의 이주공간: 만주국하동(滿洲國河東)마을 연구」, 『일본근대학 연구』 45
- 노경민, 2018, 「일제하 ‘만주국 신경’과 ‘조선 경성’의 도시계획 비교」, 『서울학연구』 71
- 노기식, 2019, 「만주학회의 북방민족사 연구활동 회고」, 만주학회 동계워크숍 발표문
- 노동은, 2009, 「만주음악연구(만주음악연구) 2: 왕토낙토를 꿈꾼 조선의 음악인들」, 『음악과 민족』 37
- 노상래, 2009, 「소설로 분광된 “만보산사건” 읽기: 이토 에노스케(伊藤永之介)의 「만보산」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57
- _____, 2014,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보는 만주: 현경준의 ‘유맹’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0
- 다나카 류이치, 2008, 「만주국민의 창출과 재만조선인 문제」,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류필규, 2016, 「1930년대 중후반 일제의 만주개척민 정책에 대한 친일 재만 한인의 선전」, 『한국학논총』 45
- 문경연·최혜실, 2008, 「일제말기 김영팔의 만주활동과 연극 <김동한>의 협화적 기획」, 『민족문화사연구』 38
- 문미라, 2017, 「만주국 도시의 재만 조선인 주택문제: ‘만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1
- 문미라·신영전, 2017, 「변경사로서의 용정의과대학(龍井醫科大學)의 역사」, 『의사학』 26(2)
- 미셸 푸코, 이규현 역, 2012, 『말과 사물』, 민음사
- 민경준, 2009, 「만주국」 조선인의 ‘皇國臣民’觀: 193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72
- 민두기, 1999, 「만보산사건(1931)과 한국 언론의 대응」, 『동양사학연구』 65
- 민현기, 1996, 「‘재만조선시인집’ 연구」, 『한국학논집』 23
- 박 강, 2006, 「‘만주국’의 아편마약 밀매정책과 재만 한인」, 『한중인문학연구』 19
- _____, 2008, 『20세기 전반 동북아 한인과 아편』, 선인
- _____, 2017, 「1930년대 만주지역의 아편재배와 한인, 그리고 匪賊」,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2
- _____, 2018, 「해방 후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과 마약문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
- 박경숙, 2009, 「식민지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2)
- _____, 2012, 「일제의 인구 조사와 인구 통치: 1908-1936년 재만 일본 영사경찰의 인구 집계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5
- 박금해, 2005, 「만주사변 후 일제의 재만 조선인 교육정책 연구」, 『동방학지』 130
- 박배균 외, 2013, 「국가와 지역: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알트
- 박배균 외, 2017, 「특구: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 알트
- 박성진, 2009, 「만주국 조선인 고등 관료의 형성과 정체성」, 『동양정치사상사연구』 8(1)
- 박성진, 2016, 「경제참모본부의 식민지적 유산과 제1공화국 기획처의 탄생」, 『동아연구』 71
- 박수연, 2013, 「참담과 승고: 서정주의 만주체험」, 『국제비교한국학』 21(3)
- 朴永錫, 1978, 『만보산사건연구』, 亞細亞文化社
- 박정현, 2004, 「1927년 재만동포옹호동맹의 결성과 화교배척사건」, 『중국학보』 69
- 박정현, 2014, 「만주사변 이후 화교배척과 조선 민족주의 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3
- 박태일, 2007,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 연구: 통영 출향과 만주국, 그리고 부왜시문」, 『어문학』 98
- 박태일, 2008, 「『만선일보』와 경남·부산 지역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36
- 박 환, 2014, 『만주지역 한인 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 _____, 2017, 『간도의 기억: 일본 제국의 대륙 침략과 조선인의 항쟁』, 민속원

- 박 환박호원, 2017, 『재만 조선총독부 시설 사진첩』, 민속원
- 백승숙, 「만주, 담론의 불안, 혹은 헤테로토피아: 1940년대 만주 소재 희곡, 유치진의 ‘흑룡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74
- 서영인, 2007, 「일제말기 만주담론과 만주기행」, 『한민족문화연구』 23
- 서은주, 2010, 「만주국 재현 서사의 딜레마, 혹은 해석의 난경 : 현경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2
- 서재길, 2007,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만주의 라디오 방송」, 『한국문학연구』 33
- _____, 2012, 「안수길 장편소설 북향보(北嚮譜) 연구」, 『현대문학의 이해』 46
- _____, 2013, 「식민지 개척의학과 제국의료의 극북(極北): 이기영의 ‘처녀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1
- _____, 2014, 「나운규의 영화와 만주: ‘사랑을 차저서’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70
- _____, 2015, 「한국 근대소설과 마적: 윤백남의 “사변전후”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20
- 서준섭, 2006, 「白石과 滿洲: 1940년대의 백석 시 재론」, 한중인문학연구 19
- 손승희, 2009, 「1931년 식민지 조선의 배화폭동과 화교」, 『중국근현대사연구』 41
- _____, 2014, 「다치바나 시라키(굴박: 1881-1945)와 만주국 건국 구상: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만주를 꿈꾸며」, 『동아인문학』 28
- 손유경, 2009, 「만주 개척 서사에 나타난 애도의 정치학」, 『현대소설연구』 42
- 송명희, 2010, 「암흑기 재만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아이덴티티」, 『현대소설연구』 43
- 송우혜, 2016, 『윤동주 평전』, 서정시학
- 송한용, 2011, 「장학량정권의 대한인정책: ‘만보산사건’의 遠因을 찾아서」, 『만주연구』 11
- 신규섭, 2006, 「재만 친일 조선인의 만주(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2
- 신영전·박세홍, 2009, 「노기순(盧基舜)의 생애: 한국 보건의료의 변경사」, 『의사학』 18(1)
- 신영전·윤호정, 2006, 「보건운동가로서의 춘곡 양봉근(春谷 楊奉根 1897-1982)의 생애」, 『의사학』 14(1)
- 신정은, 2011, 「현경준 작품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과 대응 양상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8
- 신주백, 1993, 「1932-36년 시기 간도지역에서 일어난 ‘반민생단 투쟁’ 연구」, 『사림』 9
- _____, 1994, 「1929-30년 시기 간도지역 한인 사회운동의 방향전환에 관한 연구(하)」, 『사학연구』 47

- _____, 1999, 『만주 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시아문화사
- _____, 2002, 「만주국군 속의 조선인 장교와 한국군」, 『역사문제연구』 9
- _____, 2009, 「동북공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안수민, 2017, 「기만과 자멸(자멸), 식민지인 디아스포라의 재현-기억: 손소희의 남풍(1963)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2
- 안지나, 2014, 「만주국 건국 이데올로기의 균열과 변형: 민족협화에서 오족협화로, 왕도주의에서 왕도낙토로」, 『만주연구』 18
- _____, 2017,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과 보고문학의 한계」, 『만주연구』 24
- _____, 2018, 『만주이민의 국책문학과 이데올로기』, 소명출판
- 안치영·허혜윤, 2014, 「중국 동북지역 연구 자료: 청대와民国시기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8
-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2001, 『윤리학』, 동문선
-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옮김, 2009,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 _____, 정선태·윤대석 옮김, 2018,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소명출판
- 염문정, 2019, 「심연수 문학을 통해 본 만주국 이념과 이주 조선인 사회」, 『동남어문논집』 47
- 염인호, 2010, 『또 하나의 한국 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역사비평사
- _____, 2012, 「재만 조선인 항일무장투쟁 서술과 ‘중국 조선족’의 탄생」, 『한국학연구』 28
- _____, 2015, 「재만 조선인 항일무장투쟁의 심화를 위한 디딤돌: 간도특설대」, 『역사비평』 110
- _____, 2017, 「조선족 변사(辯士) 일기를 통해본 북중 최고지도자의 상대국 방문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변화: 개혁·개방 초기 대북한(대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65
- 오경환, 2012, 「‘트랜스내셔널’ 역사: 회고와 전망」, 『한국사학사학보』 25
- 오문석, 2012, 「운동주의 다문화적 주체성의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25
- 오세창, 1979, 「재만조선인민회 연구」, 『백산학보』 25
- 오양호, 1994, 「시인구락부파의 북방행과 그 시 의식」, 『문학사상』 8월호
- 오양호·윤운진, 2011, 「1940년대 중국 동북지구 한국문학작품 연구: ‘滿洲朝鮮文藝選’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8
- 용석원, 2010, 「일제강점기 ‘만보산 사건’과 소설적 재현 양상 연구」, 『통일인문학』 50
- 우미영, 2010, 「진시되는 제국과 피식민 주체의 여행: 1930년대 만주 수학여행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48
- 우상렬, 2006, 「‘일기’를 통해 본 심연수 및 그 시세계」, 『한국시문학』 17
- 유선영, 2012, 「‘동아(동아)’ 트라우마와 제국의 지정학적 공간과 ‘이등신민’의 정치

- 학], 『사회와 역사』 94
- 유수정, 2009, 「두 개의 ‘합숙소의 밤’과 ‘만주’», 『만주연구』 9
- _____, 2011, 「‘만보산’, 농민문화와 개척문화」, 『만주연구』 11
- _____, 2016, 「이마무라 에이지(今村英治)의 동행자(同行者)와 완바오산(萬寶山)사건」, 『한국문화연구』 51
- 유필규, 2008, 「1930~40년대 연변지역 한인 ‘集團部落’의 성격」, 『백산학보』 81
- _____, 2016, 「1930년대 중후반 일제의 ‘만주개척민’ 정책에 대한 친일 재만한인의 선전」, 『한국학논총』 45
- 윤대석, 2005, 「1940년대 ‘만주’와 한국 문학자」, 『한국학보』 봄호
- 윤상원, 2012, 「‘만보산 사건’과 조선사회주의자들의 중국 인식」, 『한국사연구』 156
- 윤영실, 2017a, 「자치와 난민: 일제시기 만주기행문을 통해 본 재만조선인 농민」, 『한국문화』 78
- _____, 2017b, 「이주민족의 상상력과 최남선의 동막연운록」, 『만주연구』 23
- _____, 2018, 「최남선의 『송막연운록』과 협화 속의 불협화음: 1930년대 후반 만주 열전(列傳)과 전향의 (비)윤리」, 『사이』 24
- 윤 옥, 2016, 「“二等公民” 擡頭 下の 瓊春: 滿洲國 時期 朝鮮人의 社會的 地位의 提高」, 『동양사학연구』 136
- 윤은경, 2014, 「유치환의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의식과 혼종성」, 『비평문학』 54
- 윤해동, 2006, 『지배와 자치: 식민지기 촌락의 3국면 구조』, 역사비평사
- _____, 2017, 「한국 변경사 연구 시론: 지대, 선, 영토」, 『민족문화논총』 67
- 윤휘탁, 2000, 「만주국의 민족협화운동과 조선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6
- _____, 2001, 「만주국의 2등국(공)민,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 169
- _____, 2005, 「침략과 저항의 사이에서: 일중 갈등의 틈바귀에 낀 재만 조선인」, 『한국사학보』 19
- _____, 2009a, 「만주국 정부의 민족구성과 운영상의 특징」, 『중국근현대사연구』 43
- _____, 2009b,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보』 197
- _____, 2010, 「근대 조선인의 만주농촌체험과 민족인식: 조선족의 이민 체험 구술사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
- _____, 2011a, 「‘만보산 사건’ 전후 동북아의 민족관계와 민족모순」, 『역사학보』
- _____, 2011b, 「부리뭇한 만주 방랑지!: 조선인에게 비쳐진 만주국 사회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6
- _____, 2016a, 「만주국의 교육이념과 조선인 교육」, 『중국사연구』 109

- _____, 2016b, 「만주국의 조선인 학교의 실태와 조선인의 민족적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8
- 이개석, 2005, 「현대중국 역사학 연구의 추이와 동북공정의 역사학」,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 이경래, 2015, 「이효석의 ‘벽공무한’에 나타난 하얼빈」, 『현대소설연구』 58
- 이경분, 2010, 「‘열등한’ 일본인과 ‘신비화된’ 일본 제국」, 『국제지역연구』 19(4)
- 이경숙, 2011, 「총력전과 만주국 조선인 중등학교 체험」, 『한국교육사학』 33(3)
- 이경재, 2013, 「이기영의 ‘처녀지’ 연구: 남표와 선주의 죽음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13
- 이경훈, 2003,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한국근대문학연구』 4(1)
- _____, 2008, 「아편의 세계, 아편쟁이의 세계: 현경준의 ‘유맹’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사이』 4
- 이기운, 2007, 「윤동주 시의 사회문화적 접근」, 『한중인문학연구』 22
- 이동진, 2004, 「민족과 국민 사이: 1940년의 체육행사에서 나타나는 만주국, 조선인, 공동체」, 『만주연구』 1
- _____, 2005, 「민족, 지역, 섹슈얼리티: 만주국 조선인 ‘성매매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8(3)
- _____, 2006, 「표상으로서의 스포츠: ‘조만대항경기대회’를 사례로」, 『만주연구』 4
- _____, 2007, 「기억 속의 신경(신경) 조선인: 기억과 정치 사이」, 『대동문화연구』 70
- _____, 2010, 「방법으로서의 만주: 변경만주와 지역협력」, 이동진 외, 『중국동북연구: 방법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2, 「만주국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와 식민 사이」, 『만주연구』 13
- _____, 2013a, 「해방 직후 장춘의 조선인: 기억과 정치 사이」, 『대동문화연구』 83
- _____, 2013b, 「간도의 조선인 축구: 마을과 학교에서 민족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0
- _____, 2016, 「간도 조선인과 ‘복식 투쟁’: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 사이에서」, 『만주연구』 21
- 이복실, 2014, 「일제 말기 조선극단의 만주순회 공연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45
- _____, 2018, 『만주국 조선인 연극』, 지식과교양
- 이상경, 2011, 「1931년의 ‘배화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연구』 11
- 이선미, 2005, 「〈만주체험〉과 〈만주서사〉의 상관성 연구: 안수길의 『북간도』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15
- 이성천, 2014, 「만주국 국책 이념의 문화적 투쟁 양상에 관한 논의 고찰: 재만 시인 심연수와 윤해영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40
- _____, 2016, 「재만 시인 심연수 일기문의 비판적 고찰」, 『한국시학연구』 48

- _____, 2018, 「재만 시인 심연수 일기문에 나타난 네 편 영화의 의미」, 『우리문학연구』 60
- 이양숙, 2013, 「에스니스티와 민족의 거리: 김만선 소설에 나타난 도시체험과 난민 의식」, 『인문과학연구』 31
- 이영미, 2011, 「재만 조선인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강경애 재론」, 『한중인문학연구』 32
- 이영희, 2009, 「재만 조선인의 이주와 정착과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 현경준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1
- _____, 2014, 「일본소설 속의 헤테로화(化)한 공간, 만주」, 『인문연구』 70
- 이인영, 2012, 「만주와 고향: 『만선일보』 소재 시에 나타난 고향의식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6
- 이재령, 2004, 「남경정부시기 중국의 한국 인식: '만보산 사건'에 대한 여론동향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1
- _____, 2016a, 「1927년 조선 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상: 인천화교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35
- _____, 2016b, 「'만주 건국대학교'의 교육과 조선인 학생」, 『만주연구』 22
- 이준식, 2012, 「'만보산사건'과 중국인의 조선 인식」, 『한국사연구』 156
- 이진아, 2018, 「호명되는 남성성: 전시체제기 만주국의 위문대와 젠더정치」, 『만주연구』 26
- 이채문 외, 2017, 『연변일기 1·2: 조선족 천직교사 최정결의 33년간의 기록』, 지식과교양
- 이해영, 2015, 「대륙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설야의 '대륙'에 나타난 현실 인식」, 『현대문학의 연구』 62
- 이형찬, 1988, 「1920-30년대 한국인의 만주 이민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12
- 李勤求, 1932, 『滿洲와 朝鮮人』, 崇實校 經濟研究室
- 이희옥, 2005,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현황과 참여기관 실태」,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 임성모 외, 2007,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동북아역사재단
- 임성모, 1996, 「만주국 분단지배와 국민동원의 견인차」, 『민족문제연구』 13
- _____, 2001, 「일본제국주의와 만주국: 지배와 저항의 틈새」,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7
- _____, 2008, 「만주와 오키나와의 비교사적 고찰」,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_____, 2009a,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 소묘: '일만일체'와 '선만일여'의 갈등」, 『역사학보』 201

- _____, 2009b, 「만주농업이민 정책을 둘러싼 관동군·조선통독부의 대립과 그 귀결」, 『일본역사연구』 29
- _____, 2010, 「전후 일본의 만주 기억, 그 배후와 회로」, 『일본비평』 2
- _____, 2017, 「재만 조선인 학생 운동주의 교육적 경험과 시 의식의 상관성 연구」, 『한국사학연구』 50
- 장세룡, 2009, 「헤테로토피아: (탈)근대공간 이해를 위한 시론」, 『대구사학』 95
- 장세윤, 2005,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 _____, 2017, 「지배자의 시선으로 본 한반도 북방·만주와 중국 연변지역(북간도)」, 『만주연구』 24
- 장춘식, 2016, 「재만 조선인 문학을 보는 또 다른 시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1
- 전경선, 2011, 「만주국의 신체동원과 국민만들기 : 체육정책의 전개를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39
- 전성근, 2006, 「‘오족협화’와 ‘민족이데올로기’ 사이에서: 만주 ‘건국대학’과 최남선의 ‘만몽론’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4
- 전월매, 2009a, 「운동주와 심연수 시에 나타난 만주 인식」, 『한국언어문화학』 6(1)
- _____, 2009b, 「일제강점기 재만조선시인 범주와 거류형 시인의 만주인식」, 『만주연구』 9
- _____, 2014, 「절망과 허무의 공간: 유치환과 서정주의 만주 바라보기」, 『중한언어문화연구』 8
- 정미량, 2007, 「일제강점기 재만조선인의 교육과 그 체험: 장춘(신경)보통학교(1922-1947)를 사례로」, 『한국교육사학』 29(2)
- _____, 2010, 「중국 조선족 민족교육, 그 지속과 변화: 길림성 장춘시 관성구 조선족 소학교(1945-2009)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2
- 정안기, 2011a, 「만주국기 조선인의 만주이민과 선만척식(주)」, 『동북아역사논총』 31
- _____, 2011b, 「1936년 선만 수뇌의 도문화담과 만선일여」, 『만주연구』 12
- _____, 2014, 「1930년대 재만 조선인의 교육정치사 연구」, 『만주연구』 17
- _____, 2015, 「1930년대의 재만 조선인, 이등국민론의 비판적 성찰: 교육정치사의 관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8
- 정우택, 2009, 「재만 조선인의 혼종적 정체성과 운동주」, 『어문연구』 37(3)
- 정종현, 2010,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동대출판부
- 정주수, 2007,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의 취적 특례에 관한 고찰」, 『사법행정』 10
- 정주아, 2013, 「재만주(국) 작가 인수길과 ‘얼되눔’의 자리」, 『만주연구』 16.
- 정준영, 2016, 「‘만주 건국대학’이라는 실험과 육당 최남선」, 『사회와 역사』 110

- 조 건, 2009, 「일제의 간도성 ‘조선인 특설부대’ 창설과 재만 조선인 동원」, 『한국 근현대사연구』 49
- _____, 2015, 「일제말기 관동군의 한인동원과 피해실태」, 『한일민족문제연구』 29
- 조은주, 2013, 「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 『한국민족문화』 48
- _____, 2014, 「공동묘지로의 산책: 심연수, 유치환의 시에 재현된 하얼빈 소재 외 국인 공동묘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8
- _____, 2017, 「윤동주 시의 저항성과 탈영토적 상상력」, 『현대문학의 연구』 63
- 조정봉, 2007,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간도 이주와 야학운동」, 『한국교육』 34(1)
- 조정우, 2014,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선만척식회사 설립경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3
- _____, 2015, 「만주의 재발명: 제국 일본의 북만주 표상과 투어리즘」, 『사회와 역사』 107
- _____, 2016, 「국책회사로 본 국가-기업 관계의 구조변동: 만주척식공사 재편을 둘러싼 ‘반기업주’의 정치사회학」, 『만주연구』 21
- 조춘호, 2010, 「'9.18'사변 후, 중국 동북지역 한인자치운동과 중국공산당 대응」, 『한국학논총』 33
- 조현서, 2017, 「박팔양의 만주 체험과 작가 의식 변형」, 『국제어문』 15
- 조현설, 2007, 「민족과 제국의 동거: 최남선의 만몽문화론 읽기」, 『한국문학연구』 32
- 지수걸, 2007, 「일제하의 지방통치 시스템과 군 단위 ‘관료-유지 체제」, 『역사와 현실』 63
- 차성연, 2009a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의 의미」, 『만주연구』 9
- _____, 2009b 「현경준의 <유맹> 연구」, 『한국문학논총』 53
- 채관식, 2014, 「만주사변 전후 국내 민족주의 계열의 재만 조선인 국적 문제 제기 와 민족 인식의 논리」, 『한국근현대사연구』 69
- 천춘화, 2017, 「만주국 국경 도시 도문(圖們)과 현경준의 ‘유맹(流氓)’의 서사」, 『구 보학보』 17
- 최낙민, 2017, 「일제 강점기 安東을 통한 조선인의 이주와 기억」, 『해당도시문화교 섭학』 16
- _____, 2017, 「玄卿駿의 작품을 통해 본 國境都市 圖們」, 『중국학』 61
- 최병도, 2006, 「만주동포문제협의회 결성 및 해체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 연구』 39
- _____, 2012, 「만보산사건 직후 화교배척사건에 대한 일제의 대응」, 『한국사연구』 156
- 최병도, 2017,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동만구역국 조직과 제1차 간도공산당사건」, 『한

- 국민족운동사연구』 90
- 최병우, 2011, 「해방 후 귀환 소설에 나타난 만주 체험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48
- 최정옥, 2009, 「만주국의 《盛京时报》〈文学〉에 나타난 '만주문학'론」, 『중국어문논총』 40
- 최현식, 2014, 「서정주의 『만주일기』를 읽는 한 방법」, 『민족문학사학연구』 54
- 최홍일, 2007, 「재만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항일 활동에 관한 언론의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 최희정, 2013, 「현경준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회복과 공간의 의미」, 『한국문학연구』 46
- 테사 모리스 스희, 임성모 옮김, 2006,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산처럼
- 표언복, 2011, 「'타락한 시대'의 '타락한 글쓰기' 방법: 현경준의 아편서사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7
- 하재연, 2008, 「'신체제' 성립 전후의 한국근대문학 연구방법론 고찰: 이태준의 〈농군〉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5
- 한국문학과사상연구회, 2010, 『한국 문학의 근대와 근대 극복』, 소명출판
- 한석정, 2006, 「만주 지향과 종속성: 1930-40년대 부산 일본거류민의 세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8
- _____, 2010, 「박정희, 혹은 만주국판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 『일본비평』 3
- _____, 2012, 「만주국-60년대 한국, 불도저 국가의 흐름」, 『만주연구』 13
- _____, 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 한석정·노기식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한석정·임성모, 2001, 「쌍방향으로서의 국가와 문화: 만주국판 전통의 창조, 1932-1940」, 『한국사학회』 35(3)
- 한수영, 2003, 「만주(滿洲)의 문학사적 표상과 안수길의 '북간도'에 나타난 '이산(離散)'의 문제」, 『상허학보』 11
- _____, 2005, 「만주, 혹은 '체험'과 '기억'의 균열: 안수길의 만주배경 소설과 그 역사적 단층」, 『현대문학의 연구』 25
- _____, 2010, 「'재만(在滿)'이라는 경험의 특수성: 정치적 아이덴티티와 이민족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29
- _____, 2013, 「만주 개척의 서사와 기억의 중층성」, 『'북간도' 작품 해설』, 글누림
- 한홍구, 2001, 「대한민국에 미친 만주국의 유산」, 『중국사연구』 16.
- _____, 2001, 「만주의 민족해방운동과 중국공산당: 민생단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7
- 玄圭煥, 1967, 『韓國流移民史』, 語文閣
- 현은주, 1999, 「1930년대 재만 조선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역사와 실학』

12

- 홍은숙, 2014, 「헤테로토피아로의 여정: 만주 웨스턴 '놈놈놈'과 스파게티 웨스턴 '놈놈놈'에 나타난 비선형, 산만한 공간」, 『인문연구』 70
- 홍종필, 1990, 「만주조선인 이민수전 개척소고」, 『명지사론』 3(1)
- _____, 1992a, 「1920년대 재만조선인의 정착상 문제에 대하여: 상조권, 귀화, 소작 관습을 중심으로」, 『轉換期の 東西史學: 春田 李泰永博士 華甲記念論叢』, 白山
- _____, 1992b, 「만주 길림지방 조선인 이민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1920년대 초기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30
- _____, 1993a, 「만주 조선인 이민의 전개과정 소고」, 『명지사론』 5
- _____, 1993b, 「재만 조선인 이민의 분포 상황과 생업」, 『백산학보』 41
- _____, 1994a, 「재만조선인에 대한 중국측의 압박에 대하여: 1920년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12
- _____, 1994b, 「재만조선인농업이민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1934년 동아권업주식회사 봉천성소재조선인농장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11
- _____, 1998, 「재만 조선인 통제를 위한 '철령안전농촌(鐵嶺安全農村)'에 대하여」, 『명지사론』 9
- _____, 2000, 「재만 조선인에 대한 중국 관헌의 압박 문제」, 『명지사론』 12
- 황규수, 2010, 「재만조선인 심연수 시의 디아스포라 특성 연구」, 『새국어교육』 86
- 황민호, 1998, 『재만한인사회와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 _____, 2001, 「만주사변 이후 재만 한인의 항일무장투쟁과 국내 언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8.
- _____, 2006, 「만주지역 친일 언론 '재만조선인통신'의 발행과 사상통제의 경향」, 『한일민족문제연구』 10
- _____, 2008a, 「1930년대 후반 재만홍아협회의 설립과 대일협력 논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 _____, 2008b, 「홍아협회 기관지 '재만조선인통신」, 『승실사학』 21
- _____, 2014, 「재만 한국독립군의 성립과 항일무장투쟁의 전개」, 『사학연구』 114
- _____, 2015, 「나혜석의 독립운동과 관련 인물들」, 『나혜석연구』 6
- 叢成義, 2002, 「韓國排華慘案與日本」, 『東北亞僑社網絡與近代中國』, 中華民國海外華人研究學會
- 菊治一隆, 2007, 「萬寶山·朝鮮事件の實態と構造: 日本植民地下, 朝鮮民衆による華僑虐殺暴動を巡って」, 『人間文化』 22
- 綠川勝子, 1969, 「萬寶山事件及朝鮮内排華事件についての一考察」, 『朝鮮史研究會論文集』 6
- 李正熙, 2012, 「補論 I 1931年排華事件の近因と遠因」, 『韓國華僑と近代東アジア』, 京都

大學學術出版會

趙景達, 2008, 「朝鮮排華事件」, 『植民地朝鮮の知識人と民衆』, 有志舎

Kim, Michael, 2010, “The Hidden Impact of the 1931 Post-Wanposhan Riots,”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0(2)

Lattimore, Owen, 1932, *Manchuria: Cradle of Conflict*,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Lattimore, Owen, 1940, *Inter Asian Frontiers of China*, Boston: Beacon Press

Lee, Robert, H. G. 1970,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Zatsepine, Vicor, 2017, *Beyond the Amur: Frontier Encounters Between China and Russia, 1850-1930*, UBC Press

투고일 : 2019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9년 10월 23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0월 24일

■ Abstract ■

‘Methodological Regionalism’ and Challenges to Studying Manchuria

: Research Trends of Korean Immigration in Manchuguo

Lee, Dongj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surge in research on Koreans immigrating into Manchukuo. This article explores the phenomenon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of research on Koreans immigrating into Manchuria. It fi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s research support system contributes to the sudden rise in interest. Another is the growing impact of Korean immigrant literature in Manchuria and its growing interest among Korean literary circles within Korea. Currently, Korean young literature scholars play leading roles in this research. Such research has led to a treasure trove of discovery, providing new insight and understanding of colonial history and creating a new chapter for "last-minute" literature on the colonial period. This article takes the imbalance of literary study of "representation" as opposed to an engaged inquiry in the history of actuality. It explores the potential points of conflict and the problems that this dichotomy's imbalance could cause. Lastly, this article examines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research on Korean immigration into Manchuria as a possible form of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at should be replaced with the "methodological regionalism" that the Manchurian Studies Association has explored.

Key words: Manchuguo, Immigration of Koreans into Manchuguo, Korean literature in Manchuria, the imbalance between representation and actuality, methodological regionalism